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김주원 건축가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 강연

"아파트 공화국 속 내 정체성 드러내는 집 찾아야"

김주원 건축가가 지난 12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시대, 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김주원 건축가가 지난 1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서 '삶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건축가는 연세대 주거환경학, 홍익대 대학원 실내건축학을 전공한 후 연세대 대학원 건축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MBC 프로그램의 '신동엽의 러브 하우스' 건축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현재 (주)하우스스타일의 대표로 활동중이다.

김 건축가는 "보통 '집 짓기'를 주제로 한 강연은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땅은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등 실무적인 이야기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신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어왔던 것이에요. 누구나 집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집'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집'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날 '집은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나', '장소와 관계맺기',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대의 거울, 변화하는 삶' 등 네 가지 소주제에 대해 들려줬다.

먼저 '집은 어떻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나'에 서 그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인류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이야기한다"며 "이러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집'이다"고 설명했다. 불을 피운 흔적이 있는 곳을 집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사냥감을 구해서 요리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기술을 습득했다는 것이다. 또 '집'은 휴식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가족구성원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유대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겉돌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끌' 대출로 주택 구입 혈안
세계 최고 아파트에 살아도
답답함 느끼는 건 부족함 때문
19일 강연은 양궁 3관왕 안산

이어 '장소와 관계맺기'에서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자연에 순응하는 삶,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추구한 반면 이탈리아 등 유럽의 나라들은 자연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제압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다. 김 건축가는 이 같은 내용을 5~600년 전 지어진 영국의 한 마을을 시작으로 르네상스 시기 도시계획에 따른 이상도시 팔마노바, 성주 한개민속마을, 영국 건축가 그룹 아키그램의 플러그 인 시티 등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스 반 데어 로에, 르꼬르뷔지에, 알바 아알토 등 모더니즘 거장들이 생전에 지었던 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스스로를 드러내기'에서는 "집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 수 있다"며 "집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세기에 활동한 네덜란드 화가 얀 반 에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침실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으로서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고산 윤선도가 머물렀던 완도 보길도 세연정과 우암 송시열이 벼슬을 그만둔 후 은거했던 암서제를 비교하며 두 인물의 성격과 삶을 유추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마지막 '시대의 거울, 변화하는 집'에서는 공적영역인 사랑채과 사적영역인 안채로 나뉘어진 한국의 주택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마포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 집을 공유하는 은혜공동체협동조합주택 등을 보여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 주거모습을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공화국에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세계 최고의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의 좋은 평면도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이 아무리 좋아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집에 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고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여전히 집은 땅과 지역에 속해있고, 공동체의 삶과 맞닿아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세상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생각하다 보면 나만의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다음 강연은 오는 19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리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에 등극한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상무스타치과병원-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협약

상무스타치과병원(병원장 김운규)은 13일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박영만) 사무실에서 손태복 전무, 임내섭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 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상무스타치과병원 제공〉

민정준 전남대 교수, 세계분자영상학회 한국인 첫 펠로우

젊은 세대 교육·멘토링 역할

전남대학교 민정준〈사진〉 교수가 의료영상분야 세계 최대 학회인 '세계분자영상학회' 펠로우로 선출됐다.

민 핵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세계분자영상학회(WMIS) 수상위원회에서 학회와 해당 분야의 학문발전에 공로가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펠로우에 선출됐다.

'WMIS'는 의료영상 분야의 첨단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의 학회로서, 전 세계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WMIS 펠로우는 미국 31명, 독일 3명, 중국 2명이고,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은 각 1명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39명에 지나지 않은데, 한국인으로서는 민 교수가 처음으로 선출됐다.

그는 앞으로 학회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젊은 세대의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민정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자영상 학자로서, 한국인 최초로 WMIS 이사는 물론 학술위원회, 추천위원회, 실행위원회, 합성생물학 흥미그룹 등에서 의장 또는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차기회장 후보에 추천된 바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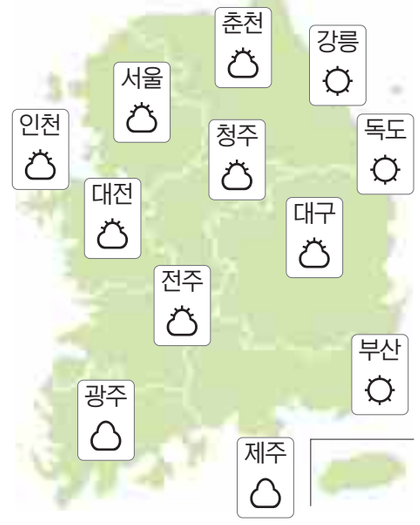
해뜸	06:37	달뜸	14:47
해짐	17:59	달짐	--:--

일교차 커요

고기압 가장자리 들며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18/26	보성	흐림	16/26
목포	흐림	19/26	순천	흐림	18/27
여수	흐림	19/25	영광	흐림	17/26
나주	흐림	16/27	진도	흐림	18/26
완도	흐림	20/26	전주	구름많음	17/25
구례	흐림	16/27	군산	구름많음	16/25
강진	흐림	18/27	남원	구름많음	16/26
해남	흐림	17/26	흑산도	흐림	20/24
장성	흐림	16/2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0
	먼바다(북)	1.5~2.5	1.5~2.5
	먼바다(남)	1.5~2.5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1.0~2.0	0.5~1.5
	먼바다(서)	2.0~3.0	1.5~2.5
	먼바다(동)	2.0~3.0	1.5~2.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1:20	08:02
	13:16	21:13
여수	09:09	03:09
	23:40	16:59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좋음

◇ 주간 날씨

15(금)	16(토)	17(일)
18/22	15/17	5/13
18(월)	19(화)	20(수)
4/18	8/18	8/17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종만(광주일보 문화사업본부장)·민경희씨 아들 민군, 문선주(광주시산림조합 전 비상임이사)·김찬심씨 딸 은하양=16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웨딩그룹 위더스 3층 펠리체홀 062-364-1234.

▲김재식(광주시교통건설국장)·김광순씨 차남 태영군, 김영덕(화순전대병원 영상의학과 기술담당 실장)·임혜영씨 장녀 소현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드메르웨딩홀 1층 르씨엘홀 062-228-0000.

▲전용준(광남일보 회장)·김재희(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씨 아들 성모군((주)앤아이애스 대표), 김희기·이순현씨 딸 영미양(삼성전자 미래전략사업부)=16일(토) 오후 3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성당(광주 서구 상무대로 980).

▲정인채(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고성희씨 아들 기승군, 차재진·김미례씨 딸 아름양=17일(일) 낮 12시 광주 광산구 도천동 드메르웨딩홀 1층 지젤홀 062-228-0000.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 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